

한국 교육시설학회를 발족 시키면서

Launching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유 영 철 / 제3대회장, 전교육부교육시설국장
 Yu, Young-Chul / The 3rd President, Former Director General of MOE
 yyc630@hanmail.net

1. 학회의 발족

우리학회가 1993년 12월 27일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발족되었다. 그날 특별 연사로 오신 고 서명원 전 교육부장관께서 강연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다. 교육시설은 역시 시설적인 면과 교육적인 면이 아울러 생각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건축학도 물론 따라야 하지만은 그것은 내 전문 밖이고 여러분들이 전공을 살려서 교육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은 교육학적 측면만 해도 교육철학이 여기에 반영되어야 하겠고 교육심리가 또 동원되어야 하겠고 교육사회학도 알아야겠고 등등으로 교육이란 글자가 붙은 데는 한없이 복잡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설도 건축학만아니라 조경학도 광학도 미학도 여기에 동원되어 참가가 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돈이 드니까 경제학적측면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학도 여기에 동원되어야 하겠고, 민속학도 여기에 동원되어야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8.15해방 이후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정부의 개방적인 교육정책이 합치 되어 교육의 기회가 확충되고, 취학 율이 급속도로 높아졌으나, 6.25사변으로 많은 학교가 파괴되었고 당시 문교예산이 정부예산의 2% 정도 밖에 안 되는 비참한 재정 속에서 천막교실과 노천교실을 많은 기간 운영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한때는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100여명에 육박 할 정도로 학생을 수용하였다. 오죽하면 콩나물교실이라고 까지 하였겠는가. 문교예산이 연약하여 교육시설 환경개선은 한참동안 따라잡지 못하였고, 그 후 정부에서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병행하여 줄곧 산업교육이 강화 되었으며, 70년 대 부터는

중화학공업을 비롯하여 많은 산업이 발달하여 경제가 안정되면서 정부예산의 17~18%에 이르는 문교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다.

2. 표준설계도 적용의

그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부족한 학교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 1962년부터 75년까지 문교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준비하여오던, 7개의 표준 설계도를 재확정하여 전국적으로 활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서 학교건축의 환경수준과 시설업무의 수준은 높아졌으나 표준화라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틀에 박힌 건축을 하게 되었다.

표준설계도의 공간구성의 특징을 보면 연도별로 교실의 크기와 복도의 폭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모두가 남측에 교실을 두고 북측에 복도를 두는 편복도형을 취하고 있다. 교사동은 북측에 두고 운동장을 남측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사동의 양단부의 복도를 교실공간으로 이용하여 특별교실을 배치시켰으나 1980년 이후부터는 교사의

표 1. 1962년도 문교부 표준설계도

형별	구조	기둥간격(m)	바닥면적(m ²)	건물길이(m)
A형	철근콘크리트 블록조	9.090 × 7.272	63.54	98
B형	목조지붕등위 스테이트	9.120 × 7.302	64.13	98
C형	벽돌조 목조지붕 스테이트	9.090 × 7.272	66.10	63.6
D형	"	9.090 × 7.272	66.10	63.6
E-1형	"	9.090 × 6.666	60.59	45.45
E-2형	"	9.090 × 6.600	60.59	45.45
E-3형	"	9.090 × 5.454	49.50	45.45

단부에는 화장실을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확일성과 단조로움을 개선하기위하여, 1990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초중등학교 건축계획의 모형연구가 시도 되었고, 처음으로 초중학교시설의 모델이 제시되었다. 이로 인해 전국 초중학교의 시설이 현대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40평생을 문교부에서 교육시설분야에 관한 일을 하면서 크게 느낀 것은 숨 바쁘게 발전해온 산업발전에 따라 교육시설도 양적으로는 발전해 왔으나 질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고민하였다.

3. 학회의 필요성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교육시설의 전문연구기관이 부재하여 교육시설 발전이 미흡하였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연구소나 연구기관보다는 학회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학회에는 관심 있는 건축학, 전기, 기계, 조경학 등 자연과학계열의 교수와 교육학을 비롯한 사회학 경제학 교수와 연구자들, 교육행정가, 기술직공무원, 설계사무소, 건설회사가 골고루 참여 할 수 있는 곳인 학회를 만들기위하여, 교육부 교육시설국에서 작업을 시작하였다. 고 서명원 전 장관께서도 서두에 다양한 학문과 인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교육시설에 많은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여 발전시킬 것으로 생각하여 이런 취지를 김숙희 장관, 이 천수 차관 및 관련 실 국장에게 그 필요성과 성격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를 거쳐 모임을 갖은 끝에 학회회장단과 이사진을 구성하고 학회의 발족에 박차를 가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받고자 평소에 학교건축에 관심이 많고 대한건축학 회회장과 소방학회 회장을 지낸 한양대 건축과 김진일 명예교수를 모셔서 임시 대표로하여 회장 부회장과 이사진을 학계 공무원 재계를 총망라하여 구성하기로 하고 학회 정관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수차례 축조심의하여 1993년 12월 27일 오후 3시 경기여고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역사적인 사단법인 한국교육학회가 탄생한 것이다. 제1대 김진일 회장에서 서봉교 회장까지 현재 제 9대에 회장으로 이어져가며 회원수도 2013년 7월 현재 인하대 건축과 박정란 교수가 1670번째로 회원이 되었다.

4. 교과과정의 발전

한 편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 7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교육내용의 변화에 따라 계속 되어질 것이다. 제1차 교육과정은 정부수립에 따라 전통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민주주의 이념을 기본적으로 한 교육내용이고 제2차 교육과정은 1963년에 제정 되었으며 그 특징은 새마을운동정신으로 첫째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학습활동을 포함시킨다. 둘째 방공정신이 투철하고 민주적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간양성, 셋째는 독립자존의 민족적 기풍과 국제협조의 정신함양 이었다. 제3차 교육과정은 1973년 2월에 공포되었으며 그 내용은 국민교육헌장의 구현과 학문중심의 교육과정 및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으로 유신과업의 추진을 반영하면서 국민헌장의 이념 그리고 이론적으로 학문중심교육과정을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은 1982년에 제정 공포된 것으로서 인간중심의 교육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교육의 기본방향을 주요 교육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은 1987년에 공포였고 중요내용은 제4차 교육과정의 기본구조를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첫째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둘째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의 강화, 셋째 교육과정의 효율성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은 1992년에 확정공포되었다, 그동안 교육부가 6차에 걸친 교육과정을 연구 검토한 결과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개선방안으로 1) 결정적 권한의 중앙 집중성, 2) 교육과정 구조의 확일성 3) 교육과정 내용의 부적합성, 4) 교육과정 목표달성의 비효율성으로 제5차 교육의 문제점으로 제6차 교육과정에서 분권화, 다양화, 접합화, 효율화가 가장 중점적으로 취급되어 있다. 우선 제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구성요소는

- * 사회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능력육성
- * 국민기본교육과정 체제도입
- * 수준별 교육과정도입
- * 교과내용과 방법의 다양화
- * 교육과정평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 확대
- * 교육과정평가체제의 확립 등이다.

건축에서 바라보는 교육시설은 이상의 목표를 담아내고, 달성하기위한 공간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고 각 학교 마다 제안 되어 운영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고 실효성 있는 다양성의 폭이 무척 제안 되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여건에서도 여전히 해법은 디자인의 가능성과 영향력에 있음을 기대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5. 회장단구성

우리 교육시설학회는 건축학회나 교육학회등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 건축학회나 교육학회는 주로 그 분야를 연구하는 석학 등이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연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나 우리학회는 다양한 분야의 석학 등이 모여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육학과 건축학은 물론이고 사회학, 미술학, 도시계획학 등도 참여하여 교육시설이란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야한다. 우리의 교육 이념과, 수차에 걸쳐 발전해온 교육과정에서 밝힌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육학 석학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교육시설학회 초대 회장단 명부를 보면 교육학을 연구한 교수는 부회장 남정걸교수와 교육홍보부 이사 유향산 교수, 2명이고 건축학을 연구한 교수는 회장 김진일, 부회

장 이경희 총무간사 김승제 연구부 이사 이호진 간사 민창기 사업부 이사 김진균 교수 6명과 교육부에서 학교시설을 담당한 부회장 유영철 총무부이사 석진복 사업부 간사 최종률 3명이며 주식회사 금강 사장인 부회장 석강봉 주식회사 범양건영 사장인 교육홍보부 간사 정호영 2명이 참여한 균형 있는 회장단이었으나, 현재 회장단은 건축학 교수 7명과 건축학과 출신 4명, 11명 모두가 건축을 전공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역대 회장은 모두가 건축학 출신이다. 학회를 운영하는 회장단에서 2004년 6월 기준으로 회원구성을 보면 전체 인원 1,299명중 교육시설 행정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회원수가 45.57%인 592명으로 과반수에 육박하면서도 회장에 단1명밖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하면 그 중요도로 보아 건축학과 쌍벽을 이루어 연구하여할 교육학 전공자는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교육학전공 회원수가 2.62%인 34명에 불과하다. 교육시설학회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면 건축학과 전공자 일색으로 회장단을 구성하지 말고 각 분야 인재 등을 고루 참석시켜 중요한 의사결정, 사업집행, 학회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결정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회장의 선임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유명한 대학총장은 교수가 총장을 하는 것 보다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경영자를 영입한다고 한다. 일반 주식회사 등도 그 사업의 전문분야 관련자 보다 경영전문인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학회의 역대회장은 건축학전공의 교수와, 건축을 전공한 한명의

표 2. 교육시설학회 초대 회장단 명단

부서	직위	성명	현 근무지
	회 장	김 진일	한양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부회장	남 정걸	단국대 과학교육학과 교수
		이 경희	연대 건축공학과 교수
		유 영철	교육부 교육시설국장
		석 강봉	주식회사 금강 사장
총 무 부	이사	석 진복	교육부 교육시설국 시설과장
	간사	김 승제	광운대 건축과 교수
연 구 부	이사	이 호진	건국대 건축과 교수
	간사	민 창기	피어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교육홍보부	이사	유 향산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간사	정 호영	주식회사 범양건영 사장
사 업 부	이사	김 진균	서울대 건축과 교수
	간사	최 종률	교육부 교육시설국 시설사무관

표 3. 현재 회장단 명단

부 서	직 위	성 명	현 근무지
	회 장	서봉교	가천대 건축학과 교수
	부회장	양관목	한양대 건축환경학부 교수
		김우영	성균관대 교수
		이재림	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조일환	교육부
총 무 부	이사	전유창	아주대 건축학부 교수
연 구 부	이사	김경호	건국대 도시건축공학부 교수
편집부	이사	김승배	경북대 건축과 교수
홍보부	이사	김경숙	동원대 교수
학술부	이사	강태웅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사업부	이사	조도연	디앤비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표 4. 직장별 회원구성표

2004년 6월 기준

직장 및 학위	소계 (%)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대학교	408(31.40)	301	63	27	17
연구소	23(1.80)	16	5	0	2
정부기관	592(45.57)	8	66	250	268
설계사무소	221(17.00)	16	91	94	20
기타	55(4.23)	4	16	22	13
소계	1,299(100)	354	241	393	320

표 5.전공분야별 회원구성표

2004년 6월 6월 기준

직장 및 학위	소계 (%)	박사	석사	학사	기타
건축계획 및 설계	380(29.25)	148	106	98	28
건축구조	33(2.54)	23	8	2	0
건축시공	37(2.85)	15	20	2	0
건축설비	14(1.08)	8	3	3	0
건축일반	556(42.80)	63	42	179	272
교육학	34(2.62)	23	10	1	0
기타	245(18.86)	65	52	108	20
소계	1,900(100)	545	241	393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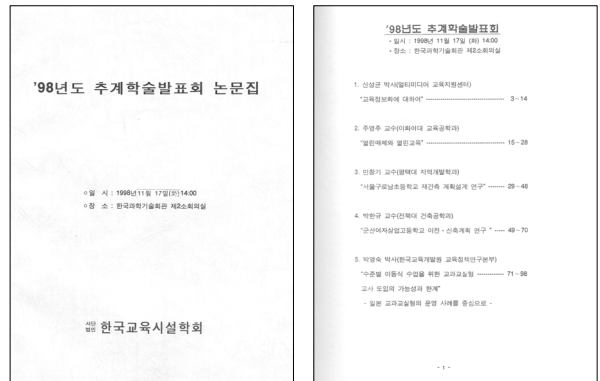
학회 20주년 기획특집을 마무리 하며

전직공무원으로 건축학전공자 일색이다. 그러나 학회의 발전방향이 일방적이고 시야도 협소 하여 질 것이다. 적어도 회장은 여러 분야의 인재들이 골고루 참여하면, 교육학 교수의 경우 교과과정, 교육철학 교육의 발전 과정을 좀 더 가깝게 학교시설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이고 2.62% 밖에 못 미치는 회원 수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50%로 육박하는 교육부와 교육청 출신이 회장이 되면 조직의 운영이 원만하고 교육부와 각 교육청, 각 급 학교와의 협조관계가 원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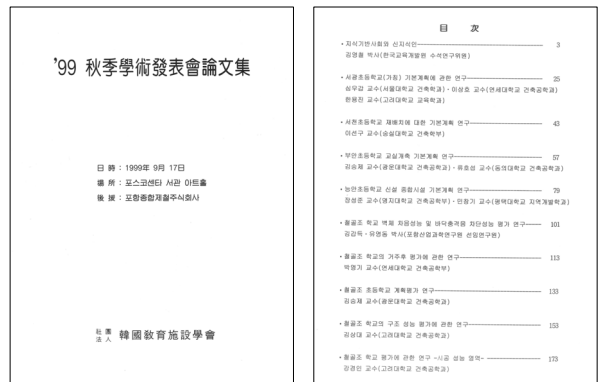
우리학회는 교육부와 교육관계기관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교육시설예산의 규모와 투자계획, 학교시설의 확충과 사업의 우선순위, 노후시설의 개선, 급속도로 발전하는 교구교재의 수용 계획 등 수많은 정보를 원활히 접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6. 당부의 말

교육 공무원과 학회임원으로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다. 특히 학회를 시작할 당시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인하여 어려운 일도 없지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본 학회를 만든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 보람된 일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본 학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원로의 한사람으로 학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당부의 말이 있으나 무엇보다 바라는 한 가지는 향후에는 회장단 구성에 있어서, 교육시설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석학들 중에서 골고루 선출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학회를 운영하였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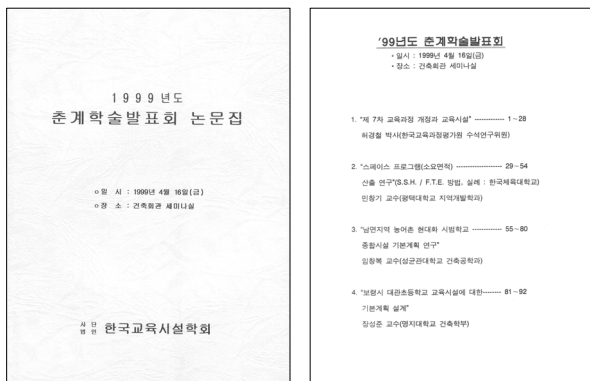
1998 추계 학술발표회자료집



1999 추계 학술발표회자료집



2000 춘계 학술발표회 및 정기 총회



1999 춘계 학술발표회자료집